

신안군수, 박우량 전례없는 첫 4선 타이틀 도전

현직 군수 징검다리 4선 군수 주목 의원·출향인사 등 입지자 민 소속 공천 경쟁 4파전 구도 '경선=본선'

6·1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 선거는 징검다리 3선에 성공한 박우량(66) 현 군수가 전례 없는 첫 4선 군수 타이틀을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. 박 군수는 역대 신안군수 가운데 3선(민선 4·5·7기)을 역임한 최초 군수다. 지방자치법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에서 세 번 연임하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. 단 세 번 연임 직후 선거를 건너뛰면,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. 네 번째 군수 직에 도전하는 박 군수에 대적할 경쟁자가 누가 될지 지역 정치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.

현재 박 군수를 비롯해 4명의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정자가 맞붙는 구도다. 임흥빈(61) 전 전남도의원, 박석배(58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, 천경배(46)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 선임팀장 등 중진 지방의원과 출향 인사들이 가세해 한 지붕 대결이 예상된다.

선거 결과는 사실상 경선 과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 경선을 앞두고 당내 입지를 높이기 위한 후보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. 현역인 박 군수는 오랜 군정 경험과 탄탄한 조직력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. 민선 4·5·7기 지방선거에서 당적 없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.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민주당에 복당했다. 그의 군정 성과도 눈여겨

볼 만하다. 박 군수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섬의 독특한 생태를 관광자원화시키는 등 신안을 탐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. 역점 사업이던 '퍼플섬'은 외신에 소개되는 등 전남 최고 관광명소 중 한 곳이 됐다. 해상풍력 발전으로 거둔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다.

만 30세 이하 청년이 전입 시 태양광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인구정책으로 인구 유입의 활로를 열었다.

박 군수의 아킬레스건은 사법리스크다. 그는 현재 기간제 공무원 특혜성 채용 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. 하지만 박 군수는 공천 배제 가능성을 일축했다. 그는 "아직 1심 선거도 열리지 않았다. 당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"며 "지난 22일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도 통과했다"고 말했다. 박 군수의 1심 선고일은 오는 5월3일이다.

박 군수의 4선 가도에 박석배 상임감사가 도전장을 냈다. 그는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 조직에서 활동한 경력과 당내 입지를 앞세워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. 박 상임감사는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, 18·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조직 총무본부장을 맡는 등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다.

현재 몸담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끌며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.

3선 임흥빈 전 도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이 강점이다. 전남도의회 8·9·10대 도

신안군수 출마 예정자(가나다순)



박석배 박우량 임흥빈 천경배

의원을 역임하면서 교육위원장을 맡았다. 그는 직전 신안군수 선거에서 당내 불화로 탈당을 결정, 무소속으로 출마해 박 군수에게 패배했던 아픔을 설욕하겠다는 각오다.

임 전 의원은 현재 전남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.

4년 전 신안군수 선거에 이어 재도전장을 내민 천경배 전 선임팀장은 중앙정부와 당내 활동 경험을 앞세워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. 후보군 중 유일한 40대로, 지난 선거 패배 이후 국회·정부·광역·기초단체, 중앙당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다. 지역 현안에도 밝아 문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할 인물로 분류된다. 그는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,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상임 선대위원장 비서실 팀장,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.

기동취재본부

함평군수, 합중연횡 변수 판세 뒤흔들지 관심

민 출마예정자들 단일화, 선거 변수 촉각 이상익 현 군수 문화관광산업 발전 성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가세·선거판 가열

6·1지방선거 전남 함평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익(66) 현 군수가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같은 당 출마예정자들 간 합중연횡 등 변수로 판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여기에 3선 출신 '나비 군수' 이석형(63) 전 함평군수가 최근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판이 가열되고 있다.

난전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 입지자가 대거 가세했다. 우선 현 군수를 포함해 김성찬(46) 전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, 정문호(58) 전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, 조성철(55) 민주당 함평지역위원회 부위원장, 임용수(57) 전남도의원, 옥부호(60) 전 함평농협조합장, 이석형(63) 전 함평군수 등이 물망에 올랐다.

이들 중 김 전 부의장과 정 전 부위원장, 조 부위원장, 임 도의원, 옥 전 조합장 등 5명은 최근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. 김영소 목포 함평향우회회장·옥부호 전 함평농협 조합장·정문호 전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·임용수 전남도의원·김성찬 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등 5명이 조성철 전 자문위원으로 후보를 단일화했다. 단일화에 합의한 예비후보 5명은 조 전 자문위원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돌기로 했다.

단일화 후보들은 " 그동안 함평은 선거 때마다 과열된 경쟁으로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"며 "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모든 역

량을 모아야 할 때 또다시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의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"고 단일화 배경을 설명했다.

이에 따라 함평군수 후보군은 이상익 현 군수와 이석형 전 함평군수, 여성 후보인 김경자 전남도의원, 조 전 자문위원 등 민주당 4파전 구도로 압축됐다.

재선 도전에 나선 이 군수는 재임 기간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. 대표적으로 '4·4·8 함평 관광 프로젝트'를 짤 수 있다. 함평엑스포공원에 자동차극장을 개장해 문화관광의 틀을 확장했다. 또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군민과의 대화, 군수관사 폐지, 군수 급여 전액 장학금 기탁,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,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, 빛그린산단 노동자 주거단지·산단 배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.

하지만 이 군수는 최근 10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약재를 맞기도 했다.

이 군수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이석형 전 군수는 KBS 프로듀서 출신으로,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 군수를 역임했다. 함평 나비축제를 전국 대표적인 봄 축제로 발전시킨 주인공으로 '나비 군수'라는 애칭을 가졌다.

이 전 군수는 재임 기간 역사·문화관광·산업 등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 이후 출마한 전남도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는 잇따라 낙선했다.

이 때문에 함평에서는 이 전 군수의 4선 도전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. 함평 발

함평군수 출마 예정자(가나다순)



김경자 이상익 이석형 조성철

전을 위해 이 전 군수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4선에 도전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라는 평가가 교차한다.

함평=김광준기자

호남신문 i-honam.com	대표전화 (062) 229-6000 광주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
회장·발행인·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	
동부취재본부	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기동 2호 (061) 905-2011
서울취재본부	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-1 (02) 2238-0003
기사제보 (062) 222-2580	광고직통 (062) 228-2580 팩스 (062) 222-5547
<small>등록번호: 광주가 00021 (일간) / 1946년 4월 창간 / 구독료 월 10,000원 1부 500원 인 쇄 (주)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.</small>	

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.
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
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.

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.
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.
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.
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.

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
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.
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.

